

취업 기혼여성 본인이 인지한 취업의 가계 경제적 효과*

Working Married Women's Perception on the Effect of Work on Household Economy

서원대학교 생활복지학과

교수 심 영**

Dept. of Family Resource Studies, Seowon University

Professor : Shim, 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working married women's perception on the effect of work on household economy. The household economy was examined in three aspects; income, assets, and consumption patterns, along with the contribution and the satisfaction of working married women with respect to their income by work. Four hundred thirty working married women with the first child of less than middle school were surveyed, with questionnaires from March 25 to April 22 of 2005, and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asons of working married women for work were making an affluent living, showing their ability, wanting for work, and making a living in order. The perceived degree of their income contribution to household income was on the average about 42.53%. They perceived the spending in time-saving consumption items, child-rearing consumption items, and personal consumption items to be decreased, if they were not working. Their work was helpful in saving, insurance and investment, debt payment, money for old life, money for housing, money for emergency. About 69% of working married women perceived their income contribution to their household income as being high.

▲주요어(Key Words) : 취업 기혼여성(working married women)

1. 문제의 제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주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바,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1990년 43.5%에서 1995년 47.4%, 2000년 50.0%, 2004년 50.3%로 나타났다(통계청, 1990, 1995, 2000, 2004).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을 미혼여성의 취업과 비교하여 보면, 2004년 기혼여성의 비율(취업한 기혼여성/전체 기혼

여성) 50.3%에 반해 미혼여성의 비율(취업한 미혼여성/전체 미혼여성)은 50.0%로 매우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기혼여성의 이러한 경제활동 참여 증가 현상은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자아실현에 대한 의식 확대, 출산율의 감소, 가사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품 및 편의기구의 발달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증가 현상은 정보사회로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기혼여성의 취업에 관한 가계 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취업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든간에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계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가계경제에 미치는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계에 추가적인 소득을 획득케 함으로서 총가계소득의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의 연구비로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 심 영 (E-mail : syoung@seowon.ac.kr)

증가를 가져와 가계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또한 이러한 가계소득의 증가는 가계에 시장에서의 구매력 증가를 가져와 소득효과를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취업과 관련된 효과를 야기함으로써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 행해진 이들 연구는 어느 정도 공통된 결과를 보여, 취업 기혼여성의 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30-4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취업으로 인해 외식비, 의류비, 교통비 등의 부분에서 소비지출이 늘어났다는 점과 더불어 증가한 소비지출에도 불구하고 취업한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은 증가한 소비지출보다 많다는 점이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소득액이나 소비지출액의 객관적인 통계치를 근거로 기혼여성의 취업에 의한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와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취업한 기혼여성 스스로 자신의 취업이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는 점은 가계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가정생활 뿐 아니라 취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한국여성개발원, 1987; 문숙재, 김혜연, 1995), 이는 가족과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보여진다. 이에 취업한 기혼여성 자신이 인지하는 취업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이는 객관적 통계치를 토대로 한 기존의 실증 연구들과의 비교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한 기혼여성이 바라본 취업으로 인한 가계경제생활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일차적인 목적으로 두고자 탐색적 차원에서 기혼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이 취업을 함으로 인해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가계의 경제 변화에 대한 기혼여성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취업한 기혼여성의 취업동기는 어떠한가, 둘째, 취업한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취업으로 인한 가계경제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기혼여성 스스로 느끼는 가계 경제적인 기여도 및 만족도는 어떠한가이다.

II. 관련 자료의 고찰

여기에서는 취업한 기혼여성이 자신의 취업에 의한 가계의 경제적 기여와 소비지출 패턴 변화를 객관적 통계자료를 토대로 실증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 객관적 통계자료에 의한 기존 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취업 기혼여성 스스로 인지하는 가계경제에 미치는 취업의 영향을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1. 가계소득에 대한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

기혼여성의 취업은 특히 가계의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그 영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계에 주 소득원인 배우자의 소득에 추가적인 소득을 야기함으로써 총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는 곧 가계의 소비생활을 위한 구매력의 증가를 가져오고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기여한다.

기혼여성의 경제적 기여도를 측정된 연구들(Pritchard, 1990; Democratic Study Group, 1990; 양세정, 1997 & 1999)에 의하면, 취업한 기혼여성 가계는 비취업 기혼여성 가계에 비해 높은 가계소득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ickery(1979)는 CES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가계소득의 28-30%로, 중산층에서의 기혼여성의 소득 기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Pritchard(1990)의 연구결과는 12.9% 높았다. 1994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한 이현송(1996)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한 기혼여성의 가계경제 기여도는 총가계소득의 32%를 차지하였고, 소득계층이 하층인 경우는 40.5%를 차지하였다.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계경제구조를 분석한 양세정(1997)의 연구결과는 취업 기혼여성 가계의 평균 소득은 비취업 기혼여성 가계의 평균소득보다 26.0% 높았다. 한편 양세정(1997)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 기혼여성 가계의 평균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에 의한 소득은 약 33.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추가 소득 전부가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향상분이 아니며 취업으로 인한 비용을 야기하므로, 취업한 기혼여성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순기여는 이러한 취업 관련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한 기혼여성의 가계경제에 대한 순기여도를 측정하고자 한 Democratic Study Group(1990)의 연구는 취업으로 인한 비용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순기여는 취업한 기혼여성 소득의 73%였고 나머지 27.0%의 소득분은 외식비, 교통비, 피복·신발비, 이미용비, 자녀양육비 등의 취업 관련 지출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배우자의 소득으로 가계의 경제적 지위를 구분하고 경제적 지위에 따른 기혼여성의 취업소득에 의한 취업 기혼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화폐소득, 저축, 주택소유의 측면에서 조사한 Hanson(1991)의 연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계의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한 기혼여성의 취업소득에 의해 저소득층은 70%, 중소득층은 38%, 고소득층은 16%의 소득 증가를 보였다. 여기에서 취업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은 37%, 중소득층은 9%, 고소득층은 5%의 소득 증가를 보였다.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양세정(1999)의 연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취업 관련 비용은 취업소득의 평균 5.0%의 미미한 수준이었고, 우리나라 취업 기혼여성의 평균소득수준은 가계소득의 24.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주부의 경제적 기여는 소득계층별, 직업별, 연령별 차이를 보였다.

취업 기혼여성의 주관적 경제 기여감을 측정된 문숙재와 김

혜연(1995)에 의하면, 취업 기혼여성들은 본인이 취업함으로써 인해 획득하는 소득이 가정경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소득에 의한 취업소득의 비율이 높을수록 주관적인 기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비지출에 대한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

여성의 취업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가계에서의 가사노동과 일을 양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계의 소비지출 영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Vickery, 1979; Goebel & Hennon, 1982; Lippert & Love, 1986; Jacobs, Shippis & Brown, 1989; Redman, 1980) 결과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는 가사노동 시간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식비, 편의식품이나 시장 서비스의 구매가 많을 뿐 아니라 취업으로 인한 비용으로 교통비나 외출복과 같은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ickols와 Fox (1983)는 취업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압박을 감소하기 위하여 편리한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간구매 전략과 남편 또는 아이들의 시간대용을 통한 시간절약의 개념을 도입한 Strober와 Weinberg(1980)의 논리를 적용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소비지출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취업은 외식과 보육료 지출에 영향을 미쳐 취업 기혼여성의 가계가 비취업 기혼여성의 가계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ellente와 Foster(1984)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Foster(1988)의 연구에서는 취업 기혼여성의 가계가 비취업 기혼여성의 가계에 비해 외식비와 가공식품비의 지출이 많았다. Yang과 Magrabi(1989)의 연구는 전일제 취업기혼여성 가계는 전업기혼여성 가계에 비해 외식비 지출이 많았다. 한편 보육서비스 지출과 가사서비스 지출은 기혼여성의 취업시간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지출은 정적인 관련을, 가사서비스 지출은 부적인 관련을 보였다. Rubin, Rinay와 Molina(1990)의 연구는 소득계층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의 경우 취업 기혼여성의 가계는 비취업 기혼여성의 가계에 비해 외식비, 의복 서비스 지출, 보육 지출이 많았다. 기혼여성의 취업과 직업유형이 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Huh(2002)에 의하면, 전업기혼여성 가계에 비해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의 가계가 외식비 지출이 많았고, 보육 관련 지출은 전업기혼여성 가계에 비해 취업 기혼여성(시간제와 전일제 모두) 가계가 많았다. 또한 직업유형에 따라 지출에 차이를 보여 높은 직업적 지위를 가진 취업 기혼여성 가계의 지출이 그렇지 않은 취업 기혼여성 가계에 비해 외식비와 보육 관련 지출이 많았다. 미국의 자료를 토대로 가사노동의 시장대체비목에 대한 기혼여성 취업의 영향력을 분석한 정순희(1993)의 연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취업은 외식비 지출과 자녀관리 지출을 증가시킨 반면에 가내 관리 지출은 감소시

켰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취업여부 대신 취업시간을 변수로 측정한 조유현(1994)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기혼여성의 취업시간이 길어질수록 외식비와 의복관리 지출이 많아졌고 가내관리 지출은 줄어들었으나 자녀 관리 지출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기혼여성의 취업 영향을 분석한 양세정(1993)은 기혼여성의 취업 효과를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총변화량, 기혼여성의 취업상태에 의해 생활양식이 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취업 관련 효과, 그리고 기혼여성의 취업에 따른 추가소득에서 비롯된 가계 구매력의 증대에 의한 소득효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취업은 대부분의 소비지출 비목에 정적인 소득효과를 야기한 반면에, 주부의 취업에 따른 취업 관련 효과는 식품, 외식, 광열수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은 부적인 효과를 보였다. 기혼여성의 가사노동시간과 가계의 시간절약 지출비의 관계를 연구한 문숙재와 정지영(1997)의 연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취업여부가 시간절약 지출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여성이 취업한 가계의 시간절약 내구재, 소비재, 서비스 소비 지출이 비취업 주부 가계보다 많았다.

문숙재와 김혜연(1995)은 취업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직업 유형에 따른 취업 관련 지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단순 노무직인 기혼여성 가계에 비해 자영업 또는 전문직인 기혼여성 가계는 배달음식의 지출이 많은 반면, 시장음식의 지출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을 하는 취업 기혼여성 가계는 탁아방비, 가정부나 파출부비, 자녀의 예체능 교습비 지출이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취업 기혼여성의 가계보다 많았다. 주부취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한 양세정(1998)의 연구에 의하면, 외식비, 가사서비스, 공공교통비, 이·미용 서비스비, 경조사 및 각종 회비 등에서 취업주부가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현정(1999)은 주부취업여부에 따른 민감한 소비지출항목을 분석한 결과, 취업주부가계에서 가사노동 시장대체 비목으로서 가사조력자 비용, 외식, 탁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기혼여성의 취업은 크게 세 영역, 즉, 시간절약 영역,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 영역, 그리고 취업으로 인한 개인적 영역에서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취업하고 있으며 첫 자녀가 초등학교 이하인 유배우자 기혼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005년 3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직장과 학습지 교사를 통해 표집된 취업한 유배우자

기혼여성 43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299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34부를 제외한 26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된 설문 내용은 취업한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 영역, 직장 일 관련 영역, 가족관계 영역, 경제생활 영역의 4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의 타당도는 일·가족 양립을 위한 가정관리 전략의 공동 연구진에 의해 점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취업한 기혼여성의 인지된 경제생활을 파악하고자 경제생활 영역과 일반적 특성 영역 자료만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경제생활 영역은 크게 소득 측면, 자산 측면, 소비지출 측면, 그리고 경제적 기여도와 만족도 측면의 네 가지 측면으로 구성하였다. 소득 측면은 취업한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취업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총가계소득, 기혼여성의 취업에 의한 소득(이하 취업소득), 그리고 총가계소득에 차지하는 취업소득의 인지된 정도를 포함하였으며, 소비지출 측면은 시간 절약 관련 소비지출 영역,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 소비지출 영역, 취업으로 인한 기혼여성의 개인적 소비지출 영역을 포함하였다. 자산 측면은 본인이 인지하는 취업으로 인한 저축·보험·투자, 부채상환, 노후생활자금 마련, 주택마련, 긴급시 사용 가능한 자금에 대한 도움을 포함하였다. 또한 취업한 기혼여성 자신의 전반적인 경제적 기여도와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 자신의 취업소득에 의한 기여도 및 만족도, 그리고 자신의 취업소득에 대해 느끼는 배우자의 인식 및 의미 정도를 포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족과 일을 양립하는 취업 기혼여성의 소비생활 양식의 단면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가전제품 구입은 어떠한가, 마지막으로 전반적으로 소비생활 여건이 어느 정도 편리한가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에 의한 가계 경제적 효과에 대한 탐색적 기초자료의 제공을 그 목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에 의한 가계 경제적 효과의 전반적인

경향과 취업한 기혼여성의 취업상태(전일제 또는 시간제), 소득 계층, 학력은 취업한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주관적 효과와 밀접히 관련되는 주요 변수이므로 이에 따른 취업 기혼여성의 취업에 의한 가계 경제적 효과 경향을 알아보려고 하였고, 이를 위해 기술적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11.0 version을 사용하였다.

3.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취업 기혼여성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생략), 연령별 분포는 30대 미만이 4.9%, 30-35세미만이 49.4%, 35-40세 미만이 33.9%, 40-45세 미만이 10.3%, 45세 이상이 1.2%로 30-35세 미만의 취업 기혼여성이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졸이 67.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이상이 25.1%, 고졸이하가 7.2%의 순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취업 기혼여성의 학력이 비교적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계층은 300만원 미만이 6.8%, 300-400만원 미만이 18.3%, 400-500만원 미만이 23.2%, 500-600만원 미만이 19.0%, 600-700만원 미만이 10.3%, 700만원 이상이 16.7%로, 조사대상 취업 기혼여성 가계의 소득이 비교적 높은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조사대상 취업 기혼여성의 직업은 전문직이 3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무직(28.5%), 자영업(1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72.6%가 전일제 취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분석결과 및 해석

1. 취업 기혼여성의 취업동기

조사대상 취업 기혼여성들의 취업동기를 알아보기 위해 일을 하게 된 주요 동기를 질문한 결과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전체 취업기혼여성의 41.0%가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취업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신

<표 1> 취업한 기혼여성의 취업동기

취업동기	전체	전일제	시간제	소득하층	소득상층	고졸	대졸	대학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생계유지	64 23.9	47 24.4	15 20.8	19 33.3	45 21.3	9 39.1	5 28.2	5 7.4
좀더 여유있는 생활	110 41.0	87 45.1	22 30.6	23 40.4	87 41.2	14 60.9	80 45.2	16 23.5
일하고 싶어	77 28.7	56 29.0	19 26.4	12 21.1	65 30.8	6 26.1	47 26.6	24 35.3
자녀 사교육비	21 7.8	11 5.7	10 13.9	7 12.3	14 6.6	7 30.4	14 7.9	0 0.0
노후생활 자금마련	9 7.1	17 8.8	2 2.8	3 5.3	16 7.6	2 8.7	11 6.2	6 8.8
능력발휘	78 29.1	59 30.6	19 26.4	15 26.3	63 29.9	5 21.7	40 22.6	33 48.5
여유시간	2 7	0 0.0	2 2.8	2 3.5	0 0.0	0 0.0	2 1.1	0 0.0
기타	5 1.9	5 2.6	0 0.0	0 0.0	5 2.4	0 0.0	2 1.1	3 4.4

의 능력발휘를 위해(29.1%), 일하고 싶어(28.7%),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해(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별 경향을 보면, 전일제 취업기혼여성과 시간제 취업기혼여성 모두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자신의 능력발휘, 일하고 싶어, 그리고 생계유지의 순이었다. 취업동기를 크게 두 가지 측면 즉, 순수한 의미에서의 가계경제에 도움과 기혼여성 자신을 위한 욕구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볼 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가계를 영위하기 위해 취업을 하게 되는 동기가 생계유지와 현재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전자의 측면을 의미하며 자신의 능력발휘와 일하고 싶어는 후자의 측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취업한 기혼여성 64.9%가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57.8%가 자신을 위해서 취업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소득계층별 취업동기 경향을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생계유지, 자신의 능력발휘, 일하고 싶어의 순이었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좀더 여유있는 생활, 일하고 싶어, 자신의 능력발휘, 생계유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역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의 생계유지를 위해 기혼여성이 취업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학력별 취업동기 경향을 살펴보면, 고졸의 취업기혼여성은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생계유지, 자녀사교육비, 일하고 싶어, 그리고 자신의 능력발휘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졸의 취업기혼여성은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생계유지, 일하고 싶어, 자신의 능력발휘의 순이었고,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은 자신의 능력발휘, 일하고 싶어,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취업동기에서 보여준 결과는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동기가 가계경제에 대한 도움보다는 자신을 위한 동기가 더 많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취업으로 인한 가계경제 변화 인지

1) 취업 기혼여성 가계의 소득

조사대상 취업 기혼여성 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평균 약 5,706,000원으로, 2004년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3,200,000원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취업형태별 기혼여성 가계의 월평균 소득을 비교하여 보면, 전일제 취업여성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약 5,579,800으로 시간제 취업기혼여성 가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6,149,300원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전주의 노동경제학 이론에서 언급되는 소득효과로 설명가능하다. 즉,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소득계층별 경향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2,605,100원이었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의 월평균 소득은 6,364,200원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보다 약 2.4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취업 기혼여성 가계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고졸 취업기혼여성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약 4,144,000원, 대졸 취업기혼여성 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5,752,900원,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가계의 월평균 소득은 6,067,200원으로 나타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계소득도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기혼여성 본인의 취업소득은 월평균 2,401,600원으로,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2,508,100원이었고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월평균 2,129,700원이었다. 소득계층별 취업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소득은 1,370,200원이었고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소득은 2,636,300원으로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취업소득을 살펴보면, 고졸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1,843,800원, 대졸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취업소득 2,458,900원, 대학원 이상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2,428,900원으로 나타나 여기에서는 대졸 출신의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이 더 높음을 보였다.

취업 기혼여성 본인이 자신의 취업소득이 가계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취업

<표 2> 취업 기혼여성 가계의 가계소득, 취업소득, 취업소득 비중

구분	전체	전일제	시간제	소득하층	소득상층	고졸	대졸	대학원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가계소득(만원)	570.60	557.98	614.93	260.51	636.42	414.40	575.29	606.72
기혼여성의 취업소득(만원)	240.16	250.81	212.97	137.02	263.63	184.38	245.89	242.89
취업소득의 기여 정도: 본인 인지도 (%)	42.53	45.70	33.42	52.75	40.03	47.46	43.01	39.55
취업소득의 기여정도: 실제 계산 (%)	43.68	46.25	36.39	57.29	40.20	48.85	43.38	42.79

소득의 기여 정도는 평균 약 42.53%로 인지하고 있었다. 취업형태별 취업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약 45.70%,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약 33.42%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취업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소득은 약 52.75%,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소득은 약 40.03%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의 취업소득의 기여가 높은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학력별 취업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고졸의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47.46%, 대졸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43.01%, 대학원 이상 취업기혼여성은 취업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39.55%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취업소득의 기여도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 기혼여성 가계의 소비지출

취업한 기혼여성이 인식하는 소비지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한 기혼여성이 “만일 직장 일을 하지 않았다면 특정 소비지출영역에서의 소비지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를 질문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했을 것이다”, “지금보다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 “지금과 같았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조금 증가했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로 응답하도록 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정 소비지출 영역은 기존의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변화를 야기했던 소비지출 항목들 즉, 취업을 함으로 인해 가사노동을 줄이기

위해 지출하게 되는 시간절약 소비지출 영역,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 소비지출 영역, 그리고 취업을 함으로 인해 취업 기혼여성이 개인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소비지출 영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간절약을 위한 소비지출 영역은 외식, 배달음식(중국음식, 피자 등), 시장음식(포장김치, 반찬류, 장류 등), 편의식품(라면, 구이김, 냉동식품 등), 의복관리서비스(의복 및 기타 세탁, 수선비), 가구집기나 가사용품, 가전제품을 포함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소비지출 영역은 유아원·유치원, 탁아방·놀이방·어린이집, 예체능 교습, 학과 교습비,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도움의 사례비를 포함하고, 취업과 관련된 개인적인 소비지출 영역은 취업여성의 의복비 및 신발, 화장품, 공공교통비(버스, 택시 등), 개인교통비(자가용 등), 개인관리(사교 및 교체비, 용돈), 통신(전화 및 핸드폰 등)을 포함하였다.

전반적인 소비지출 영역에서의 변화 인식을 보면(<표 3> 참조), 약간의 차이기는 하지만 외식과 취업여성 의복비 및 신발, 화장품,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 그리고 개인관리의 소비지출은 직장을 갖지 않았더라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소비지출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감소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별 소비지출 변화 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소비지출 항목에서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이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에 비해 직장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현재보다는 조금 더 감소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은 외식, 가정

<표 3> 취업에 의한 소비지출 변화

소비지출 항목	전체	전일제	시간제	소득하층	소득상층	고졸	대졸	대학원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시간절약 영역	외식	1.96	1.80	2.35	2.05	1.93	2.09	1.84	2.21
	배달음식	2.13	2.02	2.43	2.19	2.12	2.09	2.06	2.34
	시장음식	2.33	2.20	2.65	2.57	2.26	2.29	2.27	2.49
	편의식품	2.24	2.12	2.51	2.35	2.21	2.30	2.17	2.38
	의복관리서비스	2.27	2.23	2.38	2.28	2.27	2.22	2.22	2.43
	가구집기나 가사용품, 가전제품	2.57	2.54	2.67	2.57	2.57	2.65	2.48	2.78
자녀양육/교육 영역	유아원, 유치원	2.40	2.32	2.60	2.42	2.40	2.22	2.37	2.56
	탁아방, 놀이방, 어린이집	2.36	2.30	2.49	2.33	2.37	2.18	2.34	2.47
	가정부, 파출부	2.03	1.92	2.30	2.20	1.99	2.14	1.99	2.09
	예체능 교습	2.63	2.61	2.67	2.63	2.63	2.30	2.51	3.03
	학과 교습비	2.57	2.56	2.58	2.62	2.55	2.27	2.56	2.67
	가족이나 친척/친구 도움의 사례비	2.01	1.89	2.31	2.29	1.94	2.09	1.92	2.10
개인영역	취업여성 의복비 및 신발, 화장품	1.82	1.71	2.07	1.77	1.83	1.73	1.74	2.04
	공공교통비	1.98	1.91	2.14	1.82	2.03	1.91	1.93	2.13
	개인교통비	1.93	1.86	2.11	1.91	1.94	1.90	1.89	2.04
	개인 관리	1.98	1.89	2.21	1.93	1.99	2.05	1.87	2.22
	통신	2.03	2.01	2.10	2.02	2.03	1.95	1.97	2.22

1.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감소했을 것이다; 2. 지금보다 조금 감소했을 것이다; 3. 지금과 같았을 것이다; 4. 지금보다는 조금 증가했을 것이다; 5.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부·파출부,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도움의 사례비, 취업여성 의복비 및 신발, 화장품,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에서의 지출이 훨씬 감소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변화 인식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에 비해 외식, 배달음식, 시장음식, 편의식품, 유아원·유치원, 가정부·파출부, 학과 교습비,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도움의 사례비에 지출이 조금 더 감소했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한편, 탁아방·놀이방·어린이집, 취업여성 의복비 및 신발, 화장품,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 개인 관리에서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이 소득이 높은 취업기혼여성에 비해 직장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출이 더 낮았을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학력별 소비지출 변화 인식을 살펴보면, 학력별 소비지출 변화 인식을 살펴보면, 유아원·유치원, 탁아방, 놀이방, 어린이집, 예체능 교습, 학과 교습비, 취업여성 의복비 및 신발, 화장품, 공공교통비, 통신비에서는 고졸 취업기혼여성, 외식, 배달음식, 시장음식, 편의식품, 의복관리서비스, 가구집기나 가사용품, 가전제품, 가정부·파출부,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도움의 사례비, 개인교통비는 대졸 취업기혼여성이 직장을 갖지 않았더라면 지출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가계의 생활수준에 도움이 되었는지 취업 기혼여성 스스로 인지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표 4>와 같다. 전반적

인 생활수준, 자녀양육, 자녀교육, 그리고 자신을 위한 개인적 사용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족과의 여행이나 여가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은 전반적인 생활수준, 자녀양육, 자녀교육, 가족과의 여행이나 여가생활, 그리고 자신을 위한 개인적 사용에 자신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인지하여 시간제 취업기혼여성보다 도움의 정도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움을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자신을 위한 개인적 사용에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전반적인 생활수준, 자녀양육, 자녀교육에 대한 취업소득의 도움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는 취업소득에 대한 취업 관련 소비지출이 어떠한가를 파악한 분석결과로, 전반적으로 취업 관련 소비지출보다는 취업소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통계치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이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에 비해 취업소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인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간제 취업기혼여성보다 전일제 취업기혼

<표 4> 취업소득에 의한 생활수준 변화 인식

구분	전체	전일제	시간제	소득하층	소득상층	고졸	대졸	대학원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전반적인 생활수준	3.16	3.29	2.85	2.98	3.21	3.30	3.23	2.96
자녀양육	3.19	3.30	2.89	3.05	3.22	3.35	3.26	2.94
자녀교육(사교육비와 공교육비)	3.16	3.32	2.76	3.05	3.19	3.26	3.26	2.88
가족과의 여행이나 여가생활	2.94	3.05	2.65	2.70	3.00	3.04	2.95	2.86
자신을 위한 개인적 사용	3.12	3.18	2.99	2.81	3.21	3.09	3.18	3.00

4점 리커트 척도(4. 매우 도움; 3. 도움; 2. 도움 안됨; 1. 전혀 도움안됨)

<표 5> 취업소득 대비 취업 관련 지출

취업소득 대비 취업 관련 지출	전체	전일제	시간제	소득하층	소득상층	고졸	대졸	대학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취업지출보다 취업소득, 훨씬 많다	72 27.2	54 28.1	18 25.4	9 16.1	63 30.1	8 36.4	48 27.3	16 23.9
취업지출보다 취업소득, 조금 더 많다	94 35.5	78 40.6	15 21.1	15 35.7	79 37.8	6 27.3	70 39.8	18 26.9
취업지출과 취업소득, 거의 비슷하다	71 26.5	48 25.0	123 32.4	20 35.7	51 24.4	6 27.3	41 23.3	24 35.8
취업소득보다 취업지출, 조금 더 적다	15 5.7	7 3.6	8 11.1	4 7.1	11 5.3	0 0.0	11 6.3	4 6.0
취업소득보다 취업지출, 훨씬 적다	13 4.9	5 2.6	7 9.9	8 14.3	5 2.4	2 9.1	6 3.4	5 7.5
평균 ¹⁾	2.26	2.12	2.59	2.77	2.12	2.18	2.19	2.46

1) 평균은 취업소득 대비 취업 관련 지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을 나타냄

여성이 취업지출보다 취업소득이 많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전일제 취업기

혼여성보다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이 취업소득보다 취업지출이 조금 더 적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관련 지출보다 취업으로 인한 소득이 높다고 인지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취업지출보다 취업소득이 많다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의 취업기혼여성이 고졸이나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 여성에 비해 취업지출보다 취업소득이 많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이 고졸이나 대졸의 취업기혼여성에 비해 취업지출이 취업소득보다 적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3) 취업 기혼여성 가계의 자산

취업으로 인한 자산의 변화를 취업 기혼여성 스스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저축, 보험 및 투자, 부채상환,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마련, 주택마련, 그리고 긴급시 활용 가능한 자금에 대한 취업소득의 도움을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취업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자산 변화에 대

한 인식 경향을 보면, 취업으로 인해 저축, 보험 및 투자, 부채상환, 노후생활 자금마련, 주택마련, 긴급시 활용 가능한 자금에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은 시간제 취업기혼 여성에 비해 취업소득이 저축, 보험 및 투자, 부채상환, 노후생활 자금마련, 주택마련, 긴급시 활용 가능한 자금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였다. 소득계층별 차이를 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에 비해 취업으로 인해 저축, 보험 및 투자, 부채상환, 노후생활 자금마련, 주택마련, 긴급시 활용 가능한 자금에 도움이 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저축, 보험 및 투자, 부채상환, 노후생활 자금마련, 주택마련, 긴급시 활용 가능한 자금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비지출 양식의 변화

직장생활로 인한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이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가전제품이나 기기들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는가를 통해 소비지출 양식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표 7> 참조)에 의하면, 조사대상 취업기혼여성의 63.5%

<표 6> 취업에 의한 자산 변화

구분	전체	전일제	시간제	소득하층	소득상층	고졸	대졸	대학원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저축, 보험 및 투자	2.99	3.10	2.74	2.80	3.04	3.04	3.04	2.85
빚 갚는데	2.72	2.87	2.34	2.40	2.81	2.95	2.83	2.35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 마련	2.77	2.93	2.38	2.47	2.85	2.87	2.84	2.56
주택마련	2.85	3.01	2.39	2.53	2.93	2.86	2.95	2.57
긴급하게 돈을 사용해야 할 경우	3.05	3.15	2.78	2.75	3.13	3.24	3.07	2.94

4점 리커트 척도(4. 매우 도움; 3. 도움; 2. 도움 안됨; 1. 전혀 도움안됨)

<표 7> 취업에 의한 소비지출 양식 변화

구분	전체	전일제	시간제	소득하층	소득상층	고졸	대졸	대학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전 제품/ 기기 구입	매우 그렇다	10 3.8	8 4.1	2 2.8	1 1.8	9 4.3	3 13.0	5 2.8	2 2.9
	대체로 그렇다	87 32.7	63 32.5	24 33.3	19 33.3	70 33.0	2 8.7	61 34.3	26 8.5
	대체로 그렇지 않다	141 53.0	102 52.6	39 54.2	29 50.9	113 53.3	12 52.2	97 54.5	33 48.5
	매우 그렇지 않다	28 10.5	21 10.8	7 9.7	8 14.0	20 9.4	6 26.1	15 8.4	7 10.3
	평균 ¹⁾	2.70	2.70	2.71	2.77	2.68	2.91	2.69	2.66
소비 생활 여건	매우 불편	42 5.8	26 13.4	16 22.2	9 15.8	33 15.6	4 17.4	31 17.4	7 10.3
	불편	85 32.0	66 34.0	19 26.4	17 29.8	69 32.5	5 21.7	60 33.7	21 30.9
	그저 그렇다	79 29.7	55 28.4	24 33.3	22 38.6	59 27.8	8 34.8	52 29.2	21 30.9
	편리	54 23.0	42 21.6	12 16.7	9 15.8	45 21.1	6 26.1	32 18.0	16 23.5
	매우 편리	6 2.3	5 2.6	1 1.4	0 0.0	6 2.8	0 0.0	3 1.7	3 4.4
	평균 ²⁾	2.61	2.66	2.49	2.54	2.63	2.70	2.53	2.81

1) 평균은 4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을 나타냄

2) 평균은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을 나타냄

가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며, 3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추론은 기혼여성이 취업함으로써 인해 가전제품이나 기기 등을 이용함으로써 가사노동을 대체하기 보다는 오히려 가정에서의 가사노동과 관련된 관리 자체를 줄임으로서 오히려 이와 관련된 가전제품이나 기기를 구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추론은 자녀수가 감소함으로써 인해 가전제품이나 가전기기에 의존한 가사노동보다는 시부모나 친정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파출부를 이용하는 것이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의 73.4%,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의 63.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히려 직장 일로 인해 가사노동 자체를 줄이며 따라서 굳이 가사노동을 절약하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가전제품이나 기기를 구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고 하겠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약간의 차이기는 하나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전제품이나 기기 구입 경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로서 가족의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소비생활여건이 어떠한가의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 취업기혼여성의 47.8%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29.7%가 그저 그렇다, 25.3%가 편리하다고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3. 가계경제 기여도 및 만족도

취업으로 인한 소득의 변화, 소비지출 생활의 변화, 그리고 자산에의 도움에 대한 인지와 더불어 취업한 기혼여성 스스로 가계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와 배우자에 의해 인지되는 취업기혼여성의 가계경제 기여 정도, 그리고 본인에 의한 경제적 기여에 대한 만족도와 배우자가 부여하는 취업소득에 대한 의미 정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취업한 기혼여성들은 68.7%가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11.6%가 본인의 취업소득으로 인한 가계경제 기여가 적다고 응답하였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은 79.9%가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5.1%가 적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은 18.9%가 가계경제에 많이 기여한

<표 8> 취업 기혼여성의 가계경제 기여도 및 만족도

구분		전체	전일제	시간제	소득하층	소득상층	고졸	대졸	대학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본인 기여 인식	매우 많다	65 24.3	55 28.4	10 13.9	13 23.2	52 23.5	5 21.7	51 28.8	9 13.2
	많다	119 44.4	100 51.5	18 5.0	22 39.3	97 45.8	13 56.5	79 44.6	27 39.7
	그저 그렇다	53 19.8	29 14.9	23 31.9	11 19.6	42 19.8	2 8.7	32 18.1	19 27.9
	적다	22 8.2	9 4.6	13 18.1	8 14.3	14 6.6	2 8.7	12 6.8	8 11.8
	매우 적다	9 3.4	1 .5	8 11.1	2 3.6	7 3.3	1 4.3	3 1.7	5 7.4
	평균 ¹⁾	2.22	1.97	2.88	2.36	2.18	2.17	2.08	2.60
남편 기여 인식	매우 많다	66 24.7	50 25.9	15 20.8	9 16.4	57 26.9	6 27.3	50 28.2	10 15.2
	많다	125 46.8	107 55.4	17 23.6	22 40.0	103 48.6	13 59.1	82 46.3	30 44.1
	그저 그렇다	52 19.5	28 14.5	24 33.3	14 25.5	38 17.9	2 9.1	32 18.1	18 26.5
	적다	16 6.0	7 3.6	9 2.5	7 12.7	9 4.2	0 0.0	11 6.2	5 7.4
	매우 적다	8 3.0	1 .5	7 9.7	3 5.5	5 2.4	1 4.5	2 1.1	5 7.4
	평균 ¹⁾	2.16	1.97	2.67	2.51	2.07	1.95	2.06	2.49
본인 만족도	매우 만족	31 11.6	24 12.4	7 9.7	1 1.8	30 14.2	2 8.7	22 12.4	7 10.3
	만족	106 39.6	86 44.3	20 27.8	15 26.8	91 42.9	10 43.5	73 41.2	23 33.8
	그저 그러함	92 34.3	61 31.4	30 41.7	27 48.2	65 30.7	8 34.8	58 32.8	26 38.2
	불만족	35 13.1	23 11.9	12 16.7	12 21.4	23 10.8	3 13.0	22 12.4	10 14.7
	매우 불만족	4 1.5	0 0.0	3 4.2	1 1.8	3 1.4	0 0.0	2 1.1	2 2.9
	평균 ¹⁾	2.53	2.43	2.78	2.95	2.42	2.52	2.49	2.66
남편 의미 부여	대단히 중요	52 19.5	45 23.2	7 9.9	11 19.6	41 19.4	4 17.4	40 22.6	8 11.9
	중요함	124 46.4	99 51.0	24 33.8	24 42.9	100 47.4	16 69.6	85 48.0	23 34.3
	그저 그러함	68 25.5	42 21.6	25 35.2	18 32.1	50 23.7	3 13.0	43 24.3	22 32.8
	별로 중요 않음	20 7.5	7 3.6	13 18.3	2 3.6	18 8.5	0 0.0	8 4.5	12 17.9
	전혀 중요 않음	3 1.1	1 .5	2 2.8	1 1.8	2 .9	0 0.0	1 .6	2 3.0
	평균 ¹⁾	2.24	2.07	2.70	2.25	2.24	1.96	2.12	2.66

1) 평균은 5점 리커트 척도의 평균을 나타냄

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29.2%가 적게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62.5%가 가계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7.9%가 적게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70.3%가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9.9%가 적게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취업기혼여성 78.2%, 대졸의 취업기혼여성 73.4%,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 52.9%가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졸 취업기혼여성과 대학원 이상 취업기혼여성은 상대적으로 대졸 취업기혼여성이 비해 가계경제에 적게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배우자가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71.5%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전일제 취업기혼여성 81.3%, 시간제 취업기혼여성 44.4%가 배우자가 본인의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일제 취업기혼여성 4.1%, 시간제 취업기혼여성 12.2%가 배우자가 본인의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기여를 적게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56.4%,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75.5%가 배우자가 본인의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18.2%,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6.6%가 배우자가 본인의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기여를 적게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취업기혼여성 86.4%, 대졸 취업기혼여성 74.5%,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 59.3%가 배우자가 본인의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졸 취업기혼여성 4.5%, 대졸 취업기혼여성 7.3%,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 14.8%가 배우자가 본인의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기여를 적게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다.

취업 기혼여성 본인이 가계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만족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51.2%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14.6%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전일제 취업기혼여성 56.7%, 시간제 취업기혼여성 37.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전일제 취업기혼여성 11.9%, 시간제 취업기혼여성 20.9%가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28.6%,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57.1%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23.2%,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12.2%가 만족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취업기혼여성 52.2%, 대졸 취업기혼여성 53.6%,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 44.1%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고졸 취업기혼여성 13.0%, 대졸 취업기혼여성 13.5%,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 17.6%가 만족하지 않

고 응답하였다.

취업한 기혼여성의 취업소득에 대해 부여하는 배우자의 의미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65.9%가 중요하다고 인식한다고 응답하였고 8.6%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전일제 취업기혼여성 74.2%, 시간제 취업기혼여성 43.7%가 자신의 취업소득에 대해 배우자가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응답하였고, 전일제 취업기혼여성 4.1%, 시간제 취업기혼여성 21.1%가 자신의 취업소득에 대해 배우자가 중요하지 않게 보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62.5%,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66.8%가 자신의 취업소득에 대해 배우자가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응답하였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5.4%,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 9.4%가 자신의 취업소득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보면, 고졸 취업기혼여성 87.0%, 대졸 취업기혼여성 70.6%,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 46.2%가 자신의 취업소득에 대해 배우자가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한다고 응답하였고, 고졸 취업기혼여성 0.0%, 대졸 취업기혼여성 5.1%,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 20.9%가 자신의 취업소득에 대해 배우자는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취업 기혼여성, 그녀가 인지하는 자신의 취업으로 인한 가계 경제에 미치는 변화 혹은 효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취업한 기혼여성 스스로 자신의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가계경제의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는가라는 취업 기혼여성 스스로에 의한 평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작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의 취업동기는 좀 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자신의 능력발휘를 위해, 일하고 싶어,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해의 순이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생계유지, 자신의 능력발휘, 일하고 싶어의 순이었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는 좀더 여유있는 생활, 일하고 싶어, 자신의 능력발휘, 생계유지의 순이었다. 고졸의 취업기혼여성은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생계유지, 자녀사교육비, 일하고 싶어, 그리고 자신의 능력발휘, 대졸의 취업기혼여성은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생계유지, 일하고 싶어, 자신의 능력발휘, 대학원 이상의 취업 기혼여성은 자신의 능력발휘, 일하고 싶어, 좀더 여유있는 생활을 위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의 순이었다.

둘째, 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이 가계소득에 기여하는 정도는 평균 약 42.53% 정도로 인지하였다.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약 45.70%,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약 33.42%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였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소득은 약 52.75%,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소득은 약 40.03%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의 취업소득의 기여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고졸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47.46%, 대졸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43.01%, 대학원 이상 취업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은 가계소득의 약 39.55%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본인의 취업소득의 기여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취업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변화 인식은 전반적으로 시간절약 소비지출 영역,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 소비지출 영역, 개인적 사용 관련 소비지출 영역에서 직장 일을 하지 않았다더라면 지출이 줄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기혼여성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는 가계의 전반적인 생활수준, 자녀양육, 자녀교육, 그리고 자신을 위한 개인적 사용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가족과의 여행이나 여가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취업으로 인한 자산 변화에 대한 도움은 저축, 보험 및 투자, 부채상환, 노후생활자금 마련, 주택마련, 긴급시 활용 가능한 자금을 취업소득이 도움이 된다고 인지하였다.

직장생활로 인한 가사 일을 줄이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가전제품이나 기기들을 구입하는 경향은 조사대상 취업기혼여성의 63.5%가 그렇지 않다, 3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로서 가족의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여건이 어떠한가에 대한 인식은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셋째, 취업한 기혼여성들은 68.7%가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11.6%가 본인의 취업소득으로 인한 가계경제 기여가 적다고 응답하였다.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은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에 비해 가계경제에 많이 기여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보다 가계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많았다. 고졸의 취업기혼여성이 대졸이나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보다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한 기혼여성의 배우자 또한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1.5% 였다.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의 배우자가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의 배우자에 비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 기혼여성 배우자가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 기혼여성 배우자에 비해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상대 배우자가 인지하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기여를 많이 한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취업 기혼여성 본인이 가계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취업한 기혼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이 시간제 취업기혼여성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보다, 대졸의 취업기혼여성이 고졸이나 대학원 이상의 취업기혼여성보다 만족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한 기혼여성의 취업소득에 대해 배우자가 부여하는 의미는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전일제 취업기혼여성의 배우자가 시간제 취업기혼여성의 배우자에 비해, 소득이 높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의 배우자가 소득이 낮은 계층의 취업기혼여성의 배우자에 비해 취업소득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취업한 기혼여성의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 배우자가 취업소득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취업 기혼여성 자신 및 가계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기혼여성의 취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동기가 대부분을 이루었으나 오늘날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계의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기혼여성 특히 고학력의 기혼여성은 자신을 위한 측면에서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혼여성의 취업동기 변화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아실현에 대한 의식의 확대에 의한 때문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가계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여성의 역할 변화는 가계에서의 가족원들간의 유연한 역할분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둘째, 취업한 기혼여성 스스로 자신의 취업이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하는 점은 가계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가정생활 뿐 아니라 취업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줄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7; 문숙재, 김혜연, 1995). 결과적으로 이는 가족과 일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본인의 취업소득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대체로 정확한 인식과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및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가족과 일을 양립하는 취업 기혼여성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과거 기혼여성의 배우자가 인지하는 취업소득은 극히 미미한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배우자의 취업소득에 대한 기여정도 인식과 의미부여 정도 또한 기혼여성의 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 획득에 대한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취업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지원 예를 들어, 유아나 영아의 보육을 위한 시설의 직장내 설치나 직장에서의 유연한 근무시간제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실시하는 등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취업한 기혼여성의 소비행동은 객관적인 취업소득 규모나 취업으로 인한 가계소득 기여도 뿐 아니라 취업여성 스스로 자신의 취업소득과 기여분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취업 기혼여성의 비교적 긍정적인 가계 경제적 기여는 취업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기획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나 유통업에 중요한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준 조사대상 취업 기혼여성이나 그 배우자가 인식하는 기혼여성에 의한 취업소득의 가계경제 기여도는 기존의 실제 객관적 통계치를 토대로 분석한 객관적 기여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취업으로 인한 가계 경제적 기여 수준에 대한 취업 기혼여성의 만족도와 이에 대한 배우자의 의미부여 수준은 실제 기여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여성들이 취업으로 인해 가계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 할지라도 취업한 많은 기혼성과 그 배우자가 취업소득이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느낀다는 점은 그 자체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즉, 취업으로 인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따라서 경제적인 순소득이 상당히 많지 않다 할지라도 기혼여성의 취업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다섯째,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에 미치는 기혼여성의 취업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취업 기혼여성 본인도 그러한 소비지출 항목에서의 지출 변화를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야 할 문제는 이러한 지출액상의 변화가 과연 가족에게 제공하는 소비지출 항목에서의 질적 변화와 함께하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제공되는 외식이나 배달음식, 시장음식이 과연 가족들에게 얼마나 질적인 만족을 주느냐하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병행되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취업 기혼여성은 직장생활로 인한 가사노동의 부담을 줄이거나 도움을 받기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가전제품이나 기기들을 구입하지는 않는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취업 기혼여성들의 가사노동의 대체제로 간주되고 있는 가전제품의 수요가 기혼여성의 취업과 무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곱째,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도 일과 가족을 양립하게 되는 기혼여성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기혼여성이 가족의 삶을 함께 영위해 가기 위해서라도 편리한 소비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소비환경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갖으며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취업한 기혼여성이 인지하는 자신의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가계경제 변화를 보는 기초적인 작업이었으며, 기술적인 방법에 의한 경향 분석정도에 머물렀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와 같은 단순한 접근은 그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며, 앞으로 더 심도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비교적 고학력, 전문직, 그리고 높은 소득계층이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공동 연구로 인하여 특정 조사대상으로 자료수집 대상을 제한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던 본 연구의 한계 때문이다. 따라서 좀더 다

양한 학력, 직업, 소득계층을 포함하는 취업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취업한 기혼여성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좀더 많은 이해를 위해서는 미취업 기혼여성과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5년 09월 05일
- 심사 일 : 2005년 09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12월 19일

【참 고 문 헌】

- 구현정(1999). 취업, 비취업 주부의 가계기여도 비교 연구: 주관적, 객관적 가계기여도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숙재·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39-53.
- 문숙재·정지영(199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가사노동시간과 가계의 시간절약 지출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59-72.
- 양세정(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2), 17-28.
- 양세정(1997). 주부취업과 가계경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65-182.
- 양세정(1999).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대한가정학회지*, 36(1), 169-186.
- 이현송(1996).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 소득의 관계. *Working Paper*.
- 통계청(1990). 경제활동 인구조사.
- 통계청(1995). 경제활동 인구조사.
- 통계청(2000). 경제활동 인구조사.
- 통계청(2004). 경제활동 인구조사.
- Andre, R.(1981). 한국여성개발원 역(1987). *가정주부: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Bellente, D. & Foster, A. C.(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700-707.
- Democratic Study Group(1990). They didn't come to the party. *US House of Representatives Special Report No.* 101-32.
- Foster, A. C.(1988). Wife's employment and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15-27.
- Goebel, K. & Hennon, C. B.(1982). An empirical investigation

-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m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63-78.
- Hanson, S. L.(1991). The economic costs and rewards of two-earner and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33-634.
- Huh, E.(2002). Impact of wife's employment and preparation on service expenditures. *Journal of ARAHE*, 9, 72-77.
- Jacobs, E., Shippy, S. & Brown, G.(1989). Families of working wives spending more on services and nondurables. *Monthly Labor Review*, Feb, 15-23.
- Lippert, A. & Love, D. O.(1986). Family expenditures for food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Family Economic Review*, 3, 9-14.
- Nickols, S. Y. & Fox, K. D.(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blem.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8.
- Pritchard, M.(1990). The value of the second income to two-earner families with children. *Lifestyles: Family Economic Issues*, 12, 127-141.
- Redman, B. J.(1980). The impact of women's time allocation on expenditure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2, 234-237.
- Rubin, R. M., Rinay, B. J. & Molina, D. J.(1990). Expenditure pattern differentials between on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s: 1972-1973 and 1984.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 43-52.
- Strober, M. H. & Weinberg, C. B.(1980).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Replication and extens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259-263.
- Vickery, C.(1979). Women's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The subtle revolution: Women at work*.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 Yang, S. & Magrabi, F.(1989).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2), 133-147.